

기사주소 : <http://www.kyongbuk.co.kr/main/news/pNewsPrint.php?newsId=579281>

## 포스텍 박찬경 교수 등 3명 세아석좌교수 추대

3년간 임기·연구비 지원도

기사입력 | 2012-04-13



왼쪽부터 박찬경 교수, 한세광 교수, 차형준 교수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박찬경·한세광 교수,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가 세아석좌교수로 추대됐다.

포스텍은 12일 대학본부에서 세아석좌교수 추대식을 개최하고 신소재공학과 박찬경 교

수(59)를 세아석좌교수로,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44)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43)를 세아젊은석좌교수로 각각 추대했다.

박찬경 교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자현미경 분석가로 철강 연구, 금속·세라믹 코팅, 나노공학 분야 등에서 첨단 신소재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형준 교수는 융합유래 하이브리드 바이오접착소재 실용화 기반을 마련했고, 의료용 생체접착소재의 상용화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세광 교수는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신약 개발 등 나노의약품 생체재료 개발을 통해 바이오, 의료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세아석좌교수의 임기는 올해부터 3년간이다.

세아석좌교수는 9천만원을, 세아젊은석좌교수는 6천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성민규기자 smg@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Copyright © 1995-2007 Kyongbuk. All rights reserved.